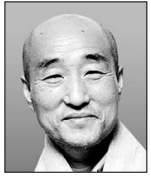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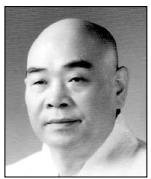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개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12월 1~3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관련 단체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연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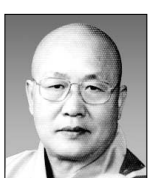
광동중·고 체육관 개관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11월 26일 광동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운악관'을 개관했다.



동국대 대각전 제8차 봉불식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23일 교내 대각전에서 일산불교병원의 성공회 회장을 바라는 제8차 대각전 봉불식을 봉행했다.



금강선원 불사기도 100일 회향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은 불사 1000일 기도중 1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하는 산림법회를 12월 11일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개최한다.(02)455-8484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에
태고종 중앙총회의원 무공 스님(서울 무량사 주지)이 최근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호국영령 추모 천도법회
성남 성보사 주지 휴암 스님은 육군 제6796부대 용호사에서 '호국영령 추모 천도법회'를 12월5일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031)753-3360



정도사 특별관음기도 입재
평창동 정도사 주지 응천 스님은 12월 5일 오전 11시 염불만일회 정도사 중창을 위한 365일 특별관음기도 입재를 봉행한다. (02)396-3405



종단협 사무국장에 임명
조계종 사회국장 현적 스님이 11월 25일자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동국대서 특강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12월 1일 오후 6시 동국대 중앙당에서 '한국정치와 대학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02)2260-3681



문광부 중무행정과장 임명
문화관광부 중무실 산하 종교행정과로 개편된 종교행정과장에 前중무1과장 강배희 씨가 11월 18일자로 임명됐다.

“전국 심인당 신교도 조직 활성화 우선”

진각종 총금강회 제7대 회장 이상귀 씨



을 갖춰 나겠다"고 다짐했다.
1941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상귀 회장은 대경케이불방송 이사, 진각종 총금강회 대구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언저니어링 칼리사를 맡고 있다.

“진각종과 총금강회 발전을 위한 신교도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로 수행과 봉사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11월 20일 열린 진각종 총금강회(총신도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귀(대구 회락심인당·사진) 씨는 진각종과 함께 발전하는 총금강회를 만들어

종단과 유기적 관계 유지
생활수행과 봉사에 역점

나간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금강회가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능동적인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진각종단을 대표하는 신도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별 심인당의 신교도 조직 활성화를 통한 질적 발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전국의 신교

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불자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수행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금강회 조직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2년의 임기동안 종단과 신교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총금강회와 종단이 마음을 열고 종단발전에 대해 논의한다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서먹한 마음은 가라앉을 것”이라며 “신교도 단체로서 종단을 발전시키고 금강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총금강회에서 종단발전을 위해 논의되고 제안된 사안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일맥문화상

명성 스님·황우석 교수
김종규 회장·김정자 교수



명성 스님

황우석 교수

김종규 회장

일맥문화재단(이사장 황우석)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사회봉사상),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과학기술상), 한국박물관협회 김종규 회장(문화예술상), 김정자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학술상) 등을 제7회 일맥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 11월 22일 경남 양산 동부산전트러블링 시상식을 개최했다.

명성 스님은 운문사강원과 승가대학원을 설립해 후진양성과 불교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역 복지시설 봉사활동에 노력한 점이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됐다.

명성 스님은 상금 2000만원 가

운데 1000만원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기금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법계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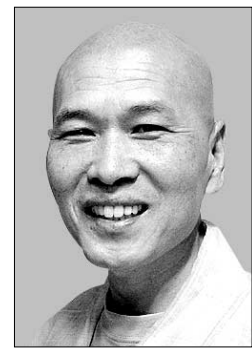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줄기세포 복제와 신경세포 분화를 성공시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속에 빛낸 인물로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황교수는 또 11월 25일 한국인문인연회가 주관하는 제4회 '지팡스런한국인 대상'에도 선정됐다.

일맥문화대상은 태창기업을 창업한 일맥 황래성 선생 뜻을 기려 1998년에 제정된 상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새 불교운동 모델 제시할 터”

(사)실천불교 초대 이사장 지선 스님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한국사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그에 맞게 새로운 불교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1992년 종단개혁과 사회민주화를 목표로 출범했던 실천승가회가 11월 22일 사단법인 '실천불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지선 스님(사진)은 '실천불교'의 발족 이유를 “제도권에서 활동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의 필요성을 느꼈다. 과거의 운동방범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선 스님은 앞으로 실천불교가 활동할 방향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대사회적 활동과 종단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가 바로 그것. “대사회적 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종단에 대해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정토사회를 일구는 것은 물론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스님은 이를 위해 캄보디아 아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이웃 불교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실천불교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실천승가회가 스님들의 모임이었다면 실천불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며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폭넓은 참여마당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보리방송문화상

총무원장상에 윤청광 씨
TV부문 최우수상 K-TV '청화...'

제12회 보리방송문화상 총무원장상에 윤청광 씨(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사진)가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총무원장상은 방송을 통해 불교문화 전달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

일반 TV 부문 최우수상에는 KBS1 TV 부처님 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청화, 56년간의 증거-그대 고향에 이르렀는가', 우수상에는 MBC TV 부처님 오신날 특집다큐멘터리 '대자유인-한국의 비구니'와 KBS1 TV '현장프로 제3시대-6인의 여행자, 부처를 만나다'가 선정됐다. 불교방송 부문

공로상은 이명학 아나운서, 포교제작상은 김상준 프로듀서(깨달음을 이어가는 사람들), 보도교양상은 조문배 프로듀서(나누며 사는 사람들 하나되는 세상), 지역방송상은 춘천불교방송 김충현 프로듀서(아라리로 일군 무릉도원, 정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TV 부문 공로상에는 김영보 카메라팀 차장이 선정됐다.(02)745-5811 여수령 기자

불교인권상 정수일·故 허원근 씨

제10회 불교인권상에 정수일 前단국대 교수(사진 왼쪽)와 군 의문사 문제를 세상을 알리는데 기여한故 허원근 이병이 선정됐다.

단국대 교수로 재직중 간첩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정 교수는 2000년 출옥한 이후 6권의 저서와 3권의 역주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해 왔다.故 허원근 이병은 1983년 8월 인대해 그해 11월 13일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는 “분단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정 교수가 학문 발전과 저술에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미해결인 군의문사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고 앞으로는 군의문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라는 뜻에서故 허 씨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삼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 ▶ 기간: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의: 수요일 - 매주(수) 오후 2시 ~ 4시 목요일 - 매주(목) 오후 7시 ~ 9시
▶ 지도교수: 金哲會 박사
▶ 장소: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시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지사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락처. Lists regional offices across Korea.

* 9월 1일부터 옥천지국이 신규개설 되었습니다.